

이렇게 설레일 줄 몰랐어요

전성민

평화호스피스 회장



자 체 내 호스피스 시설을 갖추지 않은 평화호스피스에서는 산재 병동에 있는 말기 암 환자와 중증 환자 및 가정에 있는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한 시설에서 돌보는 것과는 다르게 어려움도 있고 한 시설에 고정된 경우보다 또 색다른 아름다움도 때때로 갖게 되는 것 같다.

가정에서 투병하는 환자를 병원으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때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반 병원으로, 일반 병원에서 가정으로 퇴원하여 임종을 잘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 환자의 상태와 환경, 가족들의 조건, 봉사자들의 접근성,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자나 가족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상태에 맞도록 인도하고 주선하여 주는 역할도 참으로 큰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새 기운이 움트는 이른 삼월 아직도 한기가 있지만 양지 곁에 새싹들이 파릇파릇 예쁜 미소를 머금고 새봄은 다가오고 있었다.

신심 깊은 글라라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다.

“평화 호스피스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 글라라입니다. 혹시 전 회장님이세요?”

“예 글라라 자매님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어요?”

“저의 동네에 암 환자가 있는데 평화 호스피스에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 물론이지요.”

“지금 오실 수 있나요?”

“예, 30분 후에 집으로 가겠습니다.”

찾아간 곳은 신흥 시가지가 아름답게 꾸며진 새 아파트였다. 새 동네 새 아파트의 아름답고 산뜻한 외관과 달리 집안은 우환으로 침울한 분위기였다.

방에 들어가니 젊고 예쁜 자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 없이 앉아 있다가 잔잔한 모습으로 맞아 주었다.

“어서 오세요.”

“예, 힘드시죠?”

“예, 많이 아파요” 하면서 오목 가슴 쪽을 가리킨다.

“예, 병명도 다 알고 계시다고요?”

“예, 췌장암이래요.”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많이 아파요”

“세례명은요?”

“김미순 소화 테레사예요.”

“이름도 예쁘고 세례명도 너무 예뻐요”

“아직 꽃다운 때인데요?”

“지금 44살이에요. 아들은 6학년이고 딸은 3학년이에요. 애기 아빠 요한은 저보다 한 살 적은데요, 지금 직장에 나갔어요.”

소화 테레사는 묻지도 않았는데 상세히 가정 사정을 말해주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서 앞일을 예감하면서 하소연하는 모습이었다.

“예, 그래요. 여러 면에서 소화 데레사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많이 손이 가야 하고 돌봐야 할 때인데 많이 걱정 되겠네요?”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다가 겨우 아파트 하나 장만 했어요.”

“아, 수고 많이 하셨네요.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15년 전에 결혼하여 악착같이 살아가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모든 것을 뒤로 미루며 근검, 절약하여 아파트를 마련하였다. 이제 재미있게 살아 보려 하는데 갑자기 가슴과 배가 아팠고 약을 사다 먹어도 차도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란 진단을 받았다. 아연 실색하여 수술을 하였으나 더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 퇴원하여 집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였다.

소화 데레사는 5년 전에 세례를 받고 본당 내 신심활동이나 드러나게 한 일이 없었고 그 길지 않은 신자 생활에도 미온적인 (냉담) 기간도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은 아주 아름다웠다.

우리 일행은 소화 데레사가 하는 말을 주로 들어 주고 지지해주며 소화 데레사의 육적인 아픔에 함께 하였다.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소화 데레사의 내적 상처와 심리적 압박감을 지지자이자 위로자로서 함께 하면서 손을 잡고 나는 말하였다.

“그래요, 소화 데레사씨 얼굴도 무척 곱고 그 마음은 더 고와요. 하느님이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 와서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요. 그리고 애절한 정이 넘치는데... 하느님은 사랑이시요 자비로우신데 하느님이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파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왜소해지고 슬퍼지지요. 그러나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당신 사랑과 자비로서 이끌어 주십

니다. 주님께 의탁 합시다. 주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분명 당신의 크신 뜻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 소화 데레사를 더 없는 사랑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룩하신 하느님 역사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지고 그리스도의 갈바리아 산정에 같이 오르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든 몸을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뛰어 다니면서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이 고통의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초대되어 그 영광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고통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고 다음에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일행은 소화 데레사 옆에 둘러 앉아 애절한 마음과 부드러운 손길로 손을 잡으며 기도하였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성가: 성모의 노래 23P. 거룩한 어머니
성경 묵상 (지혜3.1~7)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에 있어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을 것이다. 미련한 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재앙으로 생각 되겠지만 의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종략-

집단이 탈 때 튀기는 불꽃처럼 퍼질 것이다.]

“소화 데레사씨, 지혜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로 초대되어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끝날 허무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되어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죽음의 과정과 꺾떼기를 벗

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은 장차 받을 영광의 전조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감사와 찬미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으로 부르시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세상 창조 때 당신 딸 김미순 소화 테레사를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제 까지 살게 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 투병하는 이 현실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지만 모든 것을 작용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아버지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당신 딸 소화 테레사와 자녀들과 모든 이들을 구원으로 좋게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의탁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틀 후에 우리 회원들이 방문 하였을 때 소화 테레사는 잔잔하면서 떠오르는 해같이 맑고도 환한 웃음으로 맞아 주었다.

“회장님 감사해요. 그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통증도 멎은 것 같네요. 아프지도 않아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병도 날씨와 같은 데가 있어요.”

회원들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집안일을 도왔고 간단히 기도하고 돌아왔다.

그 뒤로 두 달이 지나갔다. 우리 봉사자들도 소화 테레사의 모습을 통해 감사를 배워가고 있었다.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환자들 안에서 함께하시는 것을 보는 신앙의 기쁨에 감사드리게 됩니다. 소화 테레사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슬퍼 우는 모습에서 겹세마니 동산에서 수난하시고 못 박히시는 모습을 아파하였고 보잘것없는 죄인들(봉사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느끼는 환한 모습에서 “너희에게 평화”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기에 우

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봉사 안에 계신 주님의 현존의 고귀한 한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김미순 소화 테레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집에서만 치료할 수 없기에 일반 병원에 옮겼다.

김미순 소화 테레사는 두 달이 지났을 때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너무나 초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두고 갈 어린 아들 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였다.

아들과 딸의 손을 잡고 소화 테레사는 흐느끼고 있었다.

“엄마, 울지 마.” 아들이 그래도 위로하고 있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해?” 딸이 소리내어 울고 있다.

“엄마 대신 하느님이 다 잘해 주실 거야. 손을 더 꼭 잡고 셋이 울고 있었다.

우리 봉사자들도 함께 눈물을 닦아 내고 있었다. 그때 옛된 총각 같은 남편이 들어왔다. 애들이 아빠를 보면서 더 슬피 울면서

“아빠, 엄마 죽으면 안돼. 엄마 죽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남편도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같이 울고 있을 뿐 적막이 흘렀다. 우리 봉사자들도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 낼 뿐 말을 잊어 버렸다. 나는 침대 옆에 앉으면서 아이 아빠와 아이들을 바라보고 소화 테레사의 손을 잡으면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엄마 불쌍하지?”

“예, 우리 엄마 살려 주세요.”

“그래. 엄마는 죽지 않을 거야.”

“예?” 하면서 모두 번쩍하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요셉이 6학년 14살이고 안나가 11살이지. 애기가 자라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거야. 그리고 올라 갈 때 마다 힘든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도, 먹기 싫은 음식도 먹어야해. 이와 같이 발전하려면 고통이 따르고 애기가 자라듯, 나무가 크듯, 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것은 가고 있는 거야.

아빠 엄마는 그렇게 44년간 걸어온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살러 가듯이 그래서 엄마는 다른 데로 살러 가는 거야. 우리 목표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 가는 데, 엄마가 거기로 먼저 가는 거야. 마라톤에서 1등이 월계관 쓰듯이 엄마가 먼저 상 받으러 가는 거야, 엄마가 먼저 가면 거기서 우리 위해 축복해 주시니 말이야.”

눈물과 슬픈 적막이 흐르는 병실은 환한 위로와 평화가 깃들었다.

그때 딸이

“엄마, 그래? 천국 가는 거야?”

“응. 제일 좋은 하늘나라 천국을 가는 거야.”

“아빠, 그래? 먼저 가는 거야. 엄마 천국 가는 거야?” 하고 다시 묻는다.

“그래 너희들 울지 않고 말 잘 들으면”

소화 데레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용기를 잃지 말고 아이들 잘 길러 줘요.”

“그래, 걱정 하지 마.”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빠 말씀 잘 듣고, 주일학교 잘 다니고, 울지 말고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엄마 걱정 마세요, 잘 할게요.” 아들의 무뚝뚝한 말이다.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할 거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목멘 소리로

“응.”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우리 착한 아들, 우리 예쁜 딸.”

그 뒤 소화 데레사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 소화 데레사를 돌보기 시작할 때는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이었고 사순절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는데 부활 시기도 다 지나가고 있었다.

일주일에 3번씩 방문할 때마다 놀랍게 소화 데레사는 변화하고 있었다. 매일 성령 안에서 새로 나고 있었다.

이제 눈도 폭 꺼져가고, 물도 마실 수 없었고, 수

건을 적서 입술을 적서주고 눈 뜨기도 힘들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봉사자를 만나면 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소화 데레사 어때요?”

“아프고 힘들지만 감사해요.”

“예, 그래요. 어떤 점이 힘들어요?” “다른 것은 모두 주님께 맡기니까 평화로운데 통증이 너무 힘들어요.”

“예, 많이 아프지요?”

“예, 그리고요 이렇게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를…” 하고 말을 계속하지 못한다.

“예, 하느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소화 데레사 씨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으니 참 기뻐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하느님께 모두 의탁하고 좋은 아버지께서 맡아 주셨으니 걱정 안 돼요.”

어찌 엄마로 저며 오는 아픔이 없으랴. 그 아픔도, 걱정도, 모두를 온전히 의탁하고 초연한 평화로운 모습은 하느님 성령으로 새로 났음을 모든 이에게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런데요 제일 후회스러운 것은요 그동안 냉담하고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요.”

“예, 소화 데레사 씨, 이렇게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누우치는 소화 데레사를 하느님께서는 모두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럴까요? 그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열심히 살라고요.”

“아~아, 주님은 소화 데레사를 지금 한없이 사랑하시고 소화 데레사를 통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저도요, 안 아팠으면 봉사하려고 했는데요…”

“예, 우리는 돌아다니며 봉사하지만 소화 데레사는 누워서 봉사합니다. 우리는 건성으로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누워서 남편, 자녀들, 우리 봉사자들,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봉헌은

뛰어다니는 봉사 보다 더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였기에 그 수난에 일치하는 봉헌인 것입니다.”

이제 소화 데레사는 지상 생활을 마지막으로 접으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개 짓을 하고 있었다.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보여 주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초연하고도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에서 벌써 세상의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천상의 은혜로움으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이 지난 금요일이었다. 소화 데레사는 우리 봉사자들을 보고 미소로 인사했다. 우리는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고 미소로 위로하였다.

“좀 어때요?”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항상 조심스러운 대화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화 데레사는

“참 좋아요. 기뻐요.” 내 손을 잡으며 살며시 웃었다.

“회장님 감사해요”

“예. 우리가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롭게 잘 하고 있으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으레 하듯이 정성어린 기도와, 성가, 성서 말씀과 묵상으로 잔잔하게 그 영혼의 깊은 내면에 영적 도움을 주려 하였다.

“회장님. 이렇게 아프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한 없이 죄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한 없이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크시니까요.”

“회장님과 호스피스를 통해서 그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예. 그저 도구로 쓰셨을 뿐이고 하나님이 소화 데레사를 그토록 사랑하시지요.”

우리는 소화 데레사를 3달 가까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이 보게 되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소화 데레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

영세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뒤에도 열심히 살지 못하다가 병을 얻었으나 그 짧은 시기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성화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마태20,1-16)에서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화 데레사 안에서 발견하면서 끝까지 첫째가 되는 현장을 보는 듯하였고 또 첫째가 끝까지 되지 않도록 가슴을 여미게 하였다.

5월 27일 성령강림 대축일 전날 토요일 오후 4시에 이날은 방문 계획이 없었지만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혼자서 방문하였다. 이제 소화 데레사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였으나 내 소리를 듣고 손을 내밀며 살며시 웃음으로 맞아 주었다. 나는 소화 데레사의 손을 어루만지며,

“소화 데레사.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해요.”

“회장님. 저도 너무 사랑해요. 회장님을 만났다는 것이 저의 생애 중 가장 큰 행복이에요.”

“소화 데레사.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토록 소화 데레사를 사랑하시요. 죽음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에 대한 희망으로 벌써 평화 안에 기뻐하며 하늘나라를 살고 있으니 그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요. 어제는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어요.”

“무엇이 기뻐서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무엇이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일 줄 몰랐어요.”

아! 나는 그 순간 온 몸이 전율에 휩싸이는 듯하였다.

아! 이 영혼은 복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설레이는 영혼이여! 부러움을 가득히 담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일 줄 몰랐어요.” 이 말이 계속 내 마음에 메아리 치고 있었어요. 또 이 말이 소화 데레사와 나와의 마지막 대화일 줄은 우리 둘 다 몰랐다.

그 뒤에 소화 데레사의 본당 신부님이 병자성사와 임종 전대사를 주는데 소화 데레사는 똑같이 신부님께 말했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일 줄 몰랐어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막 지난 월요일 5월 28일 오후 5시 임종실로 옮겼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 임종실로 쏠살같이 달려갔다. 가느다랗고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회중을 뒤로하고 소화 데레사 옆에 섰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일 줄 몰랐어요, 소화 데레사. 그렇게 설레이며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가 왔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영원히 주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 2-3

“암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소화 데레사를 사랑하셔서 깨끗한 영혼으로 만드시고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한 잘못과 허물을 모두 용서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

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따라 이 딸의 고통과 죽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사랑하느 남편, 어린 두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소화 데레사의 고통과 임종의 아픔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공로와 성령의 도움으로 소화 데레사가 이제 세상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은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평안히 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에 맡겨 드리며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3절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안구를 열어 보더니 “2분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하였다. 얼굴 모습은 애기가 잠자듯 평온하였고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다. 설레임 속에 하느님을 만났고 많은 이에게 하느님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의 여운을 남기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그 다음 주일 소화 데레사의 소속 본당의 주임 신부님의 강론의 주제는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일 줄 몰랐어요.” 소화 데레사가 남긴 유언을 주제로 매 미사 때마다 감동적인 강론을 하였다.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일 줄 몰랐어요.” 이 마지막 말은 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화 데레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일 것이다.